



**[산업]**  
기아차 '모닝 어반' 출시  
새로운 경차의 기준 제시  
06



Life

**[라이프]**  
롯데백 영등포점  
'키즈 천국' 되다  
11



# “편안한 휴식처 만드는 일... 고객 안전이 최우선이죠” 밤낮 없이 안전 위해 고군분투...



호텔 마리나베이서울  
이성욱 FM 운영팀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호텔업계가 침체된 상황에서 방문객에게 안전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으로 고군분투하는 이가 있다. 호텔 마리나베이서울 FM 운영팀 이성욱 팀장이다. 그가 올해들어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은 방역 소독이다.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은 상시 방역 소독하고 있으며, 매주 2회 직원 동선과 고객 동선으로 나눠 살균분사식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건물종합관리만 15년째, 이 팀장은 하나호텔레컴, 에스텍시스템, 지엔비시스템 등 다양한 회사를 거쳐 현재 호텔 마리나베이서울에서 전기, 기계, 소방, 건축 설비 등 건물 유지 보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장마, 폭설 등 악천후를 비롯해 호텔에서 발생하는 여러 긴급상황 때마다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관리는 필수다.

이 팀장이 시설 관리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전기 수급 안정이다. 24시간 운영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력 과부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류를 분산해줘야 한다고. 또한, 건축물의 동력을 책임지는 각종 기계 설비 관리도 중요하다. 냉난방을 위한 에어컨과 보일러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맡은 업무다.

“평소에는 관촬지만, 여름 성수기에는 당직도 많고, 끊임없이 보수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



전기·소방 등 15년째 건물종합관리  
최근 코로나19로 방역 소독 '집중'

장마·폭설 등 긴급상황에 투입  
안전과 직결된 전문적인 영역...  
건물관리 사회적 인식 개선됐으면



호텔 마리나베이 서울 FM 운영팀 이성욱 팀장



호텔 마리나베이 서울 FM 운영팀 이성욱 팀장(오른쪽)이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에 체력적으로 힘든 게 사실이죠. 그래도 고객이 방문했을 때 편안하고 안전한 호텔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관리에 신경을 써요.”

그가 한가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이 팀장은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쾌적함을 느낄 때 보람을 느낀다”며 “호텔은 그 어떤 공간보다 편안함을 제공하는 곳이어야 하기에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시설관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서 부분보다는 전체를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일을 완벽하게 끝내는 것에 집중했다면, 현재는 건물의 연속성 측면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건물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화재관리도 맡은 업무 중 하나다. 상주인원이 많은 대형 건물은 문제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방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생각보다 사소한 보수 건도 많이 발생해요. 자동문 오작동, 파손된 타일교체, 객실 수선

부위 체크 등 매일 확인하고 손봐야 하는 곳이 다수죠. 용역업체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사소한 일일수록 직접 처리하는 편이예요.”

이 팀장이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고객 뿐만 아니라 호텔 직원들 모두 건물 내 시설물을 내 집처럼 사용했으면 하는 것이다. 또, 건물종합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것이다.

“많은 분이 건물종합관리를 시설물 하자 보수 정도로 여기는데, 안전과 직결되는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 대한 보람도 크고요. 젊은 친구들이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호텔 마리나베이서울은 방문객들의 위생 안전을 위해 전체 시설 방역을 완료하고 매일 부대시설 소독을 실시하는 중이다. 전 직원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함과 동시에 기타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위생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한편, 오는 5월 30일까지 쾌적한 요트 위에서 아라뱃길의 봄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마리나요트 패키지’를 선보인다.

‘마리나요트 패키지’는 오직 호텔 마리나베이서울에서만 선보이는 수상레저 패

키지로, 하루에 최대 4회 운영되는 요트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안전한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 1시간 가장 진행되는 마리나요트 코스는 최대 10인까지만 탑승이 가능해 쾌적한 환경을 보장한다.

아라뱃길의 풍경을 감상하며 답답한 집콕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이번 패키지는 숙박 인원수에 따라 2인 또는 3인으로 이용 가능하다. 2인 이용 시 ▲수페리어 더블 ▲조식 2인 ▲요트 2인 탑승권을, 3인 이용 시 ▲수페리어 패밀리티윈 ▲조식 3인 ▲요트 3인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마리나요트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장식할 수 있는 포토토퍼, 아라뱃길의 야경과 즐기기 좋은 버니니 캔와인 2개도 증정한다.

패키지 이용객은 피트니스센터, 키즈존, 당구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호텔에 머무르며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오후 1시 체크인과 체크아웃 혜택도 마련했다. 평일 예약 고객은 수영장 2인 이용권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사진=마리나베이서울